

민주 “중도·실용” vs 국힘 “정권 심판”… 정기국회 전면전

여야, 정반대의 노선·전략 내세워
민주, 워크숍서 국회 입법전략 논의
국힘, 연찬회 열고 대야 투쟁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각각 의원 워크숍과 연찬회를 갖고 정기국회 입법 전략과 당 노선을 정립하기 위한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중도·보수’ 세력을 포용하고 민생과 실용에 영점을 맞춰 민주당 장기 집권의 발판을 놓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동산·증시·안보 등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집권 이후 정치·사회·경제 각 분야가 ‘지옥’처럼 변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멈춰 세우겠다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민생을 위한 대개혁, 성장을 위한 대전환, 미래를 위한 대투자’란 슬로건 아래 워크숍을 진행했다. 청와대에서 홍익표 정부수석과 정을호 정부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당 대표는 ‘민주의 황금시대’라는 사명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가 치열했던 이유는 정청래 전 대표와 자신의 방법론의 차이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민주·진보 세력이 단결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본 정 전 대표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당의 아젠다를 민생·실용에 두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27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도·보수 세력까지 꺼안아야 진정한 의미의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 수 있다고 봤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영점을 다시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이 새로운 ‘A(Affordability·감당 가능한)·B(Broadening·확장)·C(Competence·유능) 위주의 아젠다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젠다의 하위 공략 분야로 청년, 문화, 글로벌, 속의민주주의 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여당이 갖게 되는 성장 친화적인 입장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적인 위치에 (대한민국이) 있지만, 더 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약자의 문제를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에서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당면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민 삶과 밀접한 부동산 공급 압박부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 미래대응기금 설치, 청년문제 해결, 경찰개혁까지 시급하지 않은 과제가 없다”고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단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연찬회를 열고 “오늘을 딛고 내일을 여는 약속”이라는 문구 아래 모였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정기국회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민의힘이 민생을 해결한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안전을 해결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본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슬로건 제창 및 퍼펙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매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치르지만 올해는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떠한가”라며 “부동산 지옥에 증시 도박판에 일자리는 절벽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은 신음하고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안보도 위태롭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군사분계선까지 밀고 들어오는데 한미 동맹은 흔들리고 우리 군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대한민국 붕괴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과연 이대로 4년을 더 맡겨놓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멈춰세우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국

민의 삶을 일으킬 제대로된 답을 우리 당이 내놓아야 한다”면서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만 바라보면 우리 당 국회의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함께 막아내고 무너진 것은 함께 일으켜 세우고 필요한 것은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민생에는 누구보다 유능하게 답하고 폭정에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이 정권이 여전히 무능하고 추악한 실상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며 “그것이 지금 여론 조사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벌이는 파괴와 해체의 실상을 낱낱이 검증하고 고발해야 한다”고 보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박근혜, 野 연찬회 참석… 통합 메시지 주목

정점식 원내대표 초청으로 자리
화합·중도 외연 확장 강조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지원에 이어 당 주요 행사에도 나타나면서 정치적 존재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 2012년 자신을 구심점으로 보수 통합을 이끌었던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열리는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국회의원 연찬회에 직접 자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충청·영남·강원 지역 등을 돌며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선거 유세 지원에 이어 당 공식 행사에도 참석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에게 연찬회 초청 의사를 전한 건 정점식 원내대표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 예방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연찬회에 (박 전)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해 우리 당이 나아갈 바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국회의원 연찬회에 초청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노선과 당협위원장 직선제 등을 두고 내홍 중이다. 특히 장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당 중진들의 불출마 등 헌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른바 ‘중진 희생론’도 내세우고 있어 일부 중진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비(非)당권파 의원들에게 잇따라 장계를 내리며,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이번 연찬회에서 박 전 대통령은 당과 진영 내의 ‘큰 어른’ 자격으로 화합과 단결, 중도 외연 확장 등을 담은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정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보수의 대통합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에서 공천 갈등으로 갈라져 나온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미래희망연대와 합당해 친박 세력을 결집하는 데 성공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는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들도 끌어안았다. 비박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수 진영 통합을 이룬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 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李 “덜수록 더 지원”… 지방우대 정책 확대

시장·군수·구청장들과 간담회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존하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필수”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에서 거리가 덜수록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우대 특례’를 계속 발굴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를 주재하고 “민선 지방자치치가 올해 31주년 됐다. 그간 지방정부의 역량과 역할은 크게 성장했지만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은 앞으로도 참으로 많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26일)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시·도지사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 저출생과 고령화 같은 또 다른 문제 등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 지방의 소멸 위기는 양 측면에서 동시에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각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를 포함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전국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고, 또 이를 토대로 지방에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계속 발굴해 가고 있다”며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합리적인 안들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syj@

“네팔 실종 국민 수색에 가용자원 총동원”

李, 수보회의·여당 오찬도 연기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네팔에서 대형 홍수가 발생해 우리 국민들이 실종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네팔 정부와의 협

력을 위해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를 열었다. 당초 이날 오후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네팔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에 수보회의를 순연했다. 28일 예정돼 있

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오찬도 연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현지 대사관, 또 현재 이동 중인 신속대응팀, 현지에 우리 해당 기업까지 가용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네팔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네팔 정부 측에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타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 미리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서예진 기자